

‘보완 시급’ 민간공원 2단계 연기 불가피

특례사업 ‘도시공원 사유화’ 등 부작용 속출...국토부 신규 정책 검토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도입을 앞두고 광주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시공원의 토지 매입비, 조성비 등을 민간건설업체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공원 일부를 고층·고밀로 개발하게 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결국 도시공원의 사유화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신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국회 입법 청원 절차와 함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정책 협약에 나섰다.

이 같이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 광주시가 서두르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 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

이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2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민간거버넌스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사업개요 등을 주제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사업 추진 배경 등을 설명하고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이다. 시가 4월 안으로 제안 공고를 내는 등 당초 계획한 대로 2단계 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는 2단계 사업이 중앙, 일국, 중외 등 광주의 대표공원을 포함하고 있는데다 국토부의 신규 정책 검토, 6·13 지방선거, 시의 예산 확보 등의 변수를 감안, 설명회를 잠정 연기 또

는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중앙·일국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원칙과 상식 없는 광주시의 2단계 민간공원 주민설명회를 반대한다”며 “2단계 대상 공원을 먼저 정하고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한 뒤 주민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푸른길 등 전국 275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국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우리 동네 도시공원 지키기’ 대국민 서명캠페인을 실시해 국회 입법 청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 협약 활동을 통해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에 책임이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의 의견 및 항

후 대응방향을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규모를 늘리는 방안, 도시재생 등 현행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지자체가 토지를 임차해 조성하는 ‘임차공원’ 도입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도 설명회 개최 등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5개 재정공원 소요예산 1600억원 확보 약속, 공기업을 참여를 획기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지침 수정 등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단법인 푸른길 조준혁 사무국장은 “시기의 긴급함과 엄중함은 인식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추진한다면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공공재인 도시공원을 보존한다는 취지에 맞도록 2단계 사업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해남 대흥사 느티나무 ‘천년나무’ 지정

전남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수령 1100년 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남 대흥사 만일암터 느티나무에 전라도 천년을 기념하는 ‘천년나무 지정 기념식’이 지난 31일 열렸다.



이 느티나무는 7층 건물 높이인 22m 크기이며, 둘레는 9.6m다. 강한 생명력은 물론 굵고 바른 줄기를 가져 웅장한 자태를 자랑한다.

‘천년나무’는 전남에서 보호 관리 중인 보호수 4051그루, 천연기념물 24그루, 기념물 28그루 등 총 4103그루를 대상으로 전남대학교 연구진과 수목 전문가 등이 심사해 예비나무 3그루를 뽑은 뒤 도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 느티나무가 최종 선정됐다.

이날 행사는 천년나무를 선정한 이유

를 알리고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기원하는 고유제(告由祭)와 천년나무 헌관 제막식, 천년나무 소원 빌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에게는 ‘천년나무’와 같은 수종인 느티나무와 남부지방에 자생하는 황칠나무를 무료로 나눠줬다.

전남도는 천년나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숲길을 정비하고 보호시설을 갖춘 방침이다. 또 사진 촬영이 가능한 포토존을 설치하는 등 관광 상품화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한반도 ‘운명의 4월’

남북정상회담 카운트다운 한미 FTA·개헌 등 산적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남북 정상회담이 1일을 기점으로 2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여정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남북은 물론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의 신경이 온통 여기에 쏠려있다. 안으로는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회의의 상하를 따라 31년 만에 개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4월은 한반도 지정학과 국내 정치질서에 있어 하나의 획을 그을 전망이다. 최대 이슈는 단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다. 자칫 남북정상회담으로 향하는 길에 돌발 사태가 발생하거나 정상회담에서 기대하는 성과를 이루지 못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 여정은 꼬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 인식에 따라 힘겹게 도출해 낸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우리그릇’이 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밟고 있는 형국이다.

회담이 4주가 채 남지 않았지만, 날짜·장소 외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다. 의제는 우리 측이 밝힌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남북관계 개선에 북한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큰 틀에서는 방향이 잡힌 분위기이지만, 비핵화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이견이 생길 소지도 없지



조용필 평양 도착 남북평화 협력기원 남측예술단의 가수 조용필이 지난 31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 도착, 직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않다.

북안이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선(先)조치’를 거듭 강조하고 있어 미국과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비핵화 해법에 대한 북미 사이의 ‘중재 역할’을 맡은 문 대통령으로서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이에 대한 교통정리를 분명히 해야 비핵화로 향한 순탄한 첫걸음을 뗄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최근 사실상 타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환율이나 비

핵화 문제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점은 문 대통령으로서 고심스러운 대목이다.

이와 관련, 2018 남북정상회담 관련 준비를 위한 추가 남북 고위급회담이 오는 18일 개최될 전망이다. 이 중 문재인 대통령은 문 대통령 앞에 놓인 또 다른 이슈는 헌법 개정이다. 지난날 26일 불가피하게 대통령 개헌안 발의라는 파격 안을 던진 이후 뒤늦게 여야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사실상 이날 안에 ‘구(舊)체제’ 청산 여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다.

청와대는 국회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전제로 여야가 개헌안을 도출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기대하면서도 만에 하나 그러지 못하더라도 대통령 개헌안을 두고 국민투표에 들어가길 희망하고 있다.

물론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투표 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중순 국회에서 개헌 연설에 나서는 등 개헌 드라이브를 계속해 나간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중 우주정거장 ‘텐궁 1호’ 오늘 지구로 추락할 듯

중국의 우주정거장 ‘텐궁 1호’의 지표면 추락 예상시간이 당초보다 2시간 앞당겨졌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 등에 따르면 텐궁 1호는 한국시간 2일 오전 9시 12분±4시간, 즉 2일 오전 5시 12분과 오후 1시 12분 사이에 지구 표면에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는 “대기 흐름과 밀도 등 환경 변화에 따라 텐궁 1호의 궤도 분석 정보가 변한다”며 “이 정보 변화에 따라 추락 예상시간이 변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락이 임박한 고도 120km부터는 궤도 분석 정보가 쌓여, 추락 예측 시간의 오차범위를 9분에서 25분 내외로 좁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기식 금감원장 오늘 취임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때 국회 정무위원회 ‘지적수’로 불렸던 김기식(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금융위는 김 신임 원장이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정책위원장 등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개혁적 경제정책을 개발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19대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소관하는 정부위원으로 활동, 금융 정책·제도·감독 등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시민단체와 국회 등에서 활

동한 금융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1999년 참여연대 정책실장으로서 시민사회에 뛰어난 이후 사무처장과 정책위원장 등을 거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2016년 이후에는 터미리연구소장을 지내며 문재인 정부의 금융 부문 개혁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김 원장은 2일 취임식을 기점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연합뉴스

전국·임야
바로 삽니다, 지분물건 환영 010-6838-123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구례군 토지면 면적 3683㎡ 투자성 출음 1억3천
- 곡성군 삼기면 대지와 전 681㎡ 광주시 30분 내 6층만원
- 완도 악산면 특리지 비디전 2481㎡ 민박전환할 분할가 2억4천

주택·유희·아파트

- 전원주택 함평 해변면 대지 991㎡ 집 79㎡ 태화에서 차로5분 1억5500
- 월산동 송림아파트 옆 토지 166㎡ 건평 180㎡ 3세대생활 2억45천
- 월산동 소방도로 옆 2층 주택 전체공실 토지 150㎡ 1억7천
- 농성동 대지 156㎡ 집 96㎡ 1층전세 4천안고 1억4500

투자·매도·교환

- 농성동 건강협회부근 준주거 139㎡ 주택있음 삼기전환 2억6천
- 동구 충정로5가 오지 1876㎡ 개발예정합 공사기 50억 매도100억
- 나주 남평시내 상업지 2919㎡ 개발예정합 공사기 8억8천 매도36억
- 신안동 전대정문쪽 토지 160㎡ 주택 70㎡ 7억5천
- 장성 모뎀 땅 364㎡ 건평 164평 감정 5억6천 은행 3억 매도 4천
- 고흥 나로도부근 팬션 땅 9891㎡ 건평 267㎡ 객실 10개 7억46천
- 양동시장근처 재개발지역 대로변 대지 217㎡ 주택 3억2천
- 장성 북이면 수성리 전 2136㎡ 전원생활합 4500만원
- 금남로5가 대로변 북동상업지 2010㎡ 병원 오피스텔등 적합 52억
- 무안군 운남면 내리 전원주택 등 적합 5000㎡ 1억9천
- 월산동 무진중부근 원목주택 379㎡ 남향 소방도 접 매도3억8천
- 충진로 5가 도로접 상업지 490㎡ 삼기전환 7억6천
-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833㎡ 창고등 적합 1억5백만원

상가건물

- 북구 문흥동 대지 171㎡ 5층 상가주택 491㎡ 임대생활합 7억6천
- 북구 용평동 전대후문 땅 516㎡ 4층건물 790㎡ 공사기 16억 매도 16억
- 순천만 팬션 대대동 땅 332㎡ 건평 285㎡ 방 8 년매출 1억5천 은행 3억 매도 은행포함 6억7천 은퇴자 생활에 최적
- 충진로5가 버스도로 대지 265㎡ 건평 1001㎡ 10억5천
- 양동 모뎀-커피숍-노래방 대지 577㎡ 건평 1164㎡ 시설출음 12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주택

- 정덕동 1층 단지내상가 38㎡(보3천만/월 155만) 매 4,2억
- 수원동 7층 건물(보증금 6억 월3,200만) 매 75억
-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80만) 매 25억
-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 5.4억 월1,300만) 매 32억
- 용평동 4층 건물(보증금 1억, 월745만) 매 17,5억
- 하남동 4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3억
- 산정동 2층 건물(보증금 2억 월1,100만) 매 27억
-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540만) 매 25억
- 쌍암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580만) 매 43억
- 나주시 성북동 1층상가 대 489㎡ 건 322㎡ 매 7억2천
- 양산동 원목 대 300㎡ 매 7억8천(보1억, 월4백만, 안집)
- 오선동(진곡산단) 대 785㎡ 건 600㎡ 매 21억(보2억, 월900만)
- 담양군 수북리 전원주택 대 506㎡ 건 96㎡ 매 3억5천

토 지

- 서구 매월동 대로변 자연녹지 3,600㎡ 매 38억(전시장 물류 사옥 적합)
- 서구 금호동 자연녹지 1,250㎡ 매 20억(카센터, 물류 적합)
- 서구 서상동 대지, 전 1,760㎡ 매 13억5천
- 서구 세하동 1층주거 담 1,810㎡ 매 17억(창고적합)
- 광산구 소촌동 자연녹지 3,800㎡ 매 27억(공업사 물류창고 적합)
- 광산구 비아동 자연녹지 6,130㎡ 매 37억(공업사 물류창고 적합)
- 광산구 우산동 상업지역 코너지리 대지 612㎡ 매 12억
- 광산구 운남동 대로변 자연녹지 2,100㎡ 매 32억(전시장 사옥적합)
- 남평읍 상곡리 전,임야 9,240㎡ 매 8억4천(전원주택부지 적합)
- 도곡면 원화리 계획관리지역 나대지 5,355㎡ 매 33억(요양병원적합)
- 진원면 선적리 재개발주거 대지 830㎡ 매2억6천
- 담양군 대전면 선성리 1층주거지역 전 1,637㎡ 4억6천(창고적합)
- 정읍시 신정동 전 3,300㎡ 매 4억5천(전원주택, 거문시장 적합)
- 고흥군 송림리 전 17,000㎡(약 5천평) 매 3.3㎡당 2.52만원 (토목공사원로, 비닷가토지, 남향동, 팬션, 카라방, 전원주택, 태양광적합)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정덕동 롯데마트 부근

덕남동 -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4100평 공유지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
- 매매 - 평당 20만원
- 일불 대폭 조정가
- 문의, 010-3605-5000